

박수린

1. 전공/학년/이름 소프트웨어학과/3학년/박수린

2.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mark>자취</mark>

(2019-1/여름방학/2019-2 모두 해당)

<u>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u>

3. 면접 가능 날짜 2019.3.09 / 2019.3.11

5. 코드카데미 html, css & 프로그래머스 파이썬 수강 완료





저는 아주대학교에 입학한 후 2018년에 1년간 과학생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 관련 기획과 홍보 활동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제 기간에 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입니다. 고작 이틀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포스터 제작 및홍보, 메뉴 구성, 수요조사 및 물품 준비, 학생회원들의 스케쥴 관리 등사전에 진행되는 작업이 당일의 단순 노동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곧 수입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견 조정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것인지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팀원들과 의견 조정을 통해서 멋진 결과물이 탄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서로의 소통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학생회활동을 하며 많은 회의 경험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7. 멋쟁이 사자처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학기동안 저는 동아리와 학생회, 아르바이트를 병행 하면서도 학점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 하였고, 모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학점에 예민한 편이어서 수강신청을 할 때 혼자 과제하는 수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까지 다른 사람과 접할 기회는 많 았지만 사회적인 활동이 아닌 학술적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팀활동을 한 경험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쟁이 사자처럼에서의 활동은 앞으로 진행될 수 많은 팀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학년에 파이썬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제대로 언어를 알고 깊게 들어가서 Django 까지 정복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톤이나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래밍 관련 역량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꼭 멋사의 일원이 되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겠습니다.

